

## 동화 심사평

어린이는 진실을 꿰뚫어본다. 어른들의 눈을 가리는 멋진 차나 좋은 옷, 권력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화는 바로 그 본질과 진실을 찾는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시인이 그토록 절절히 외쳤던 '껍데기는 가라'를 오직 순수함으로 실천하는 이들이 어린이고, 그렇게 많은 가짜들을 버리고 순수하게 진실을 보려 하는 것이 동화이다. 오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마주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그들이 바라본 광주와 5.18의 진실을 담은 작품들을 보내주었다. 작품의 진정성과 문학적 완성도, 새로운 시각, 작가적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등이 심사 기준이었다.

80년 당시를 상징하는 주먹밥, 자동차, 사진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으나 교훈적이고 상투적인 주제와 서사 나열에 머문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개연성 없는 사투리의 사용도 작가의 집필 의도를 흐리게 했다. 하지만 좋은 작품이 더 많았다. 다양한 형식과 과감한 내용 등의 패기 있는 작품도 여럿 있었고, 실제 경험을 옮겼다고 여겨지는 작품도 보였다.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는 상처들을 짚은 작품들을 만날 때면 반가웠다.

그 중에 5편의 작품을 본선에 올렸다. <배틀80, 그리고 코드 518>, <가려진 이름>, <봄플꽃 할머니>, <주먹은 가짜다>, <오월에 내리는 눈>이었다.

<배틀 80, 그리고 코드 518>은 새로운 구성이 눈길을 끌었고, <가려진 이름>은 문장을 끌고 가는 힘과 작가의 충분한 사유를 느낄 수 있었다. <봄플꽃 할머니>는 어린이 독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고, <주먹은 가짜다>는 5.18을 과거에 두지 않고 현실과 연결하려는 작가의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네 편의 작품들은 5.18에 대한 계몽이나 교훈성과 작위성, 상투성 등을 짙게 내포하고 있어 아쉬웠다.

결국 <오월에 내리는 눈>을 당선작으로 올리게 되었다. 오월 동화가 가져야 할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고마운 작품이다.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것은 물론, 당시 어린이가 실제 겪은 것 같은 현실감과 비극을 서정적으로 만드는 울림 또한 컸다.

주인공 아이가 머무는 집은 곧 5.18 당시 광주의 축소판이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는 따뜻함, 느닷없이 닥친 불행 속에서도 허둥대지 않는 의연함, 어린이의 안위를 먼저 챙겼던 당시 광주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에 크게 공감하였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서사도 중요했지만 등장인물들이나 소품들이 갖는 역할과 쓸모가 적절했다. 구체성이 갖는 힘 또한 이 작품을 끌어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어린이가 오월의 진실을 담담하게 끌고 가는 방식이 뛰어났다. 앞으로 작가의 활동을 기대한다.

아동문학에서도 5.18은 진실과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고민과 노력이 함께 할 때 아동문학은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심사위원 <안오일, 정란희>